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구할망본풀이

구할망본풀이>들어가는 말미
동해용궁할마님~, 난산국에 본풀저 험네다.

구할망본풀이>본풀이

아방국은 동해용궁(東海龍宮), 어멍국은 서해요왕(西海龍王) 동해용궁똥님애기는 예산 친구월(-九月) 초아흐렛날 탄생헤엿구나.

흔 설 나난 어머님 젓가심 뚜드린 쥬(罪), 두 설 나난 아버지 삼각수(三角鬚) 거시린 쥬, 세 설 네 설 나난 기어덩기명 넣어놓은 날레¹⁾ 허튼²⁾ 쥬, 다섯³⁾ 설 나가난 동넛 어른 말 곱양 곁데답 헌³⁾ 쥬,

“너는 불효(不孝) 조식(子息)이로구나.”

인간 귀양 보네켄 허난,

“어머님아, 나 인간에 가민 어떻게영 샅네까?”

“할망으로 자정(坐定)허라.”

“어떻 생불(生佛) 줍네까?”

“아방 몸에 흰 피, 어멍 몸에 검은 피, 움도리 방석, 애미 젓줄⁴⁾ 똥경 종이붓을⁵⁾ 씨왕 열 들 감양 차렌.”

허당 보난, 아버지 호통 소리 남구나. 동해와당은 쥬철인⁶⁾ 아덜 불러다가 무쇄설갑(鐵石匣) 짜근, 저 바당더레 상거심 조심통쥬⁷⁾ 질로 절강 증가간다.⁸⁾ 임박사 임부루주 계문계철(開門開鐵)허렌 헤연 데껴부난, 물 우이도⁹⁾ 흥당망당, 물 알에도¹⁰⁾ 흥당망당 떠 뎅긴다.

임박사가 이십 스물, 삼십 서른이 넘어가도 아기 엿어근 호에탄식(後悔歎息)허니, 흐를날은¹¹⁾ 처녀 물가에 강 백일 불공(百日佛供) 드렸구나. 백일째 뉘는 날은 바당더레 보난 무쇄설갑이 들물 고개로 올람구나. 혼저¹²⁾ 올르난¹³⁾ 건전¹⁴⁾ 보난¹⁵⁾ 임박사 계문계철 허렌 허니, 상거심 조심통쥬 열언 보난 앞이명엔 헛님, 듯이명엔 들님, 양단 어깨 금산세벌 백힌 듯 헌 곱딱헌¹⁶⁾ 아기씨가 잇엇구나.

1) 날레: 별을 찌기 위하여 명석에 넣어놓은 곡식.

2) 허튼: 흐트러뜨린.

3) 곁데답 헌: 바르게 하지 않은 대답을 한.

4) 젓줄: 젓줄.

5) 종이붓을: 종이처럼 얇은 태(胎)를.

6) 쥬철인: 무쇠장이는.

7) 상거심 조심통쥬: 큰 빗장으로 채우는 자물쇠.

8) 증가간다: 잡근다.

9) 우이도: 위에도.

10) 알에도: 아래도.

11) 흐를날은: 하루는.

12) 혼저: 재빠르게.

13) 올르난: 올라가서.

14) 건전: 건져서.

15) 보난: 보니.

“아기씨는 누계짜?”¹⁷⁾

“나는 인간에 생불할망으로 오랏우덴.”

허난,

“우리 두갇이¹⁸⁾ 오늘까지 살아도 아기 엇영¹⁹⁾ 호이탄복(後悔歎服) 헤염수다.”

아방 몸에 힌 피 네리온다. 어멍 몸에 감은 피, 움도리 방석, 애미 젓줄, 종이붓을 씨완 열
돌이 다 뒹엇구나. 베는 테독기²⁰⁾ 불엇인다, 애긴 열로²¹⁾ 네우는²²⁾ 법은 아니 배우난, 겁질
에 처녀 물가에 간 데성통곡(大聲痛哭) 울어간다. 임박사는 각시 죽을 때가 뒹어간, 진양도
폭 청세띠 금바랑(金哮囉) 옥바랑(玉哮囉) 들렁, 동악산(東惡山)은 서악산(西惡山), 남악산(南惡
山)은 북악산(北惡山) 올라근 금바랑 소리, 옥바랑 소리 옥항에 올린 옥항상저(玉皇上帝)님
은,

‘인간에서 처량헌 바랑소리가 올라오람구나.’

지부스천왕(地府四天王)을 불러놓고,

“고요한 인간 세상에서 처량헌 바랑 소리가 나난 천양 알을²³⁾ 둘러보라.”

천양 알을 둘러보니,

“임박사 각시 애기 베연, 애기 못 난 죽을 사경이 뒹엇우덴.”

허난, 멩진국이 뜨넘아기 불러간다.

“강,²⁴⁾ 임박사 각시 애기 네와동 오렌.”

허난, 멩진국에 뜨넘아긴 춤실 은기²⁵⁾ 갓영²⁶⁾ 네렸구나. 임박사 각시 아기 네와두고 처녀
물가이 넘어 가단 보난, 꽃 기²⁷⁾ 아기씨가 데성통곡헤연 울엄구나.

“아기씨는 무사²⁸⁾ 이디²⁹⁾ 앓안³⁰⁾ 데성통곡 울엄수짜? 어떻허난³¹⁾ 아기썬 이기³²⁾ 오랏인
디³³⁾ 놀핏네가³⁴⁾ 남수짜?³⁵⁾ 난 임박사 각시 애기 네와동 감수덴.”

허난, 놀려 들언³⁶⁾ 아기씨 머리,

“이년, 저년, 죽일 년, 잡을 년~ 데동통편에 청뎃섭에³⁷⁾ 목 걸령 죽일 년아, 네가³⁸⁾ 벤 애

16) 꼬딱헌: 고운.

17) 누계짜: 누구십니까.

18) 두갇이: 부부(夫婦)가.

19) 엇영: 없어서.

20) 테독기: 큰 항아리같이.

21) 열로: 어디로.

22) 네우는: 해산(解産)하는.

23) 알을: 아래를.

24) 강: 가서.

25) 은기: 은가위.

26) 갓영: 가지고.

27) 꽃 기: 꽃 같은.

28) 무사: 왜.

29) 이디: 여기.

30) 앓안: 앓아서.

31) 어떻허난: 어떻게 해서.

32) 이기: 여기.

33) 오랏인디: 왔는데.

34) 놀핏네가: 피비린내가.

35) 남수짜: 낚니까.

36) 놀려들언: 날려들어.

37) 청뎃섭에: 푸른 대나무 앞에.

38) 네가: 내가.

긴디 너가 네왔느냐?”

니 머리, 나 머리 하도 튼언 싸와가난,

“오라.³⁹⁾ 우리 싸우지 말앙, 하늘 옥항에 올라가게.”

하늘 옥항에 올라가난, 옥항상저님한테 가난~, 사실 말을 곱앗구나.⁴⁰⁾ 얼굴도 꺾따지고,⁴¹⁾ 말도 꺾따지난,

“난 니네덜 구별(區別) 못헤키여.”⁴²⁾

은수반(銀小盤)을 네여 논다. 꽃씨를 심으렌 허난, 멩진국떡님아기 꽃씨 심으난, 불리⁴³⁾ 난 디 송에⁴⁴⁾ 나고, 송에 난 디 가지 벌고 가지 벌으난, 동더레, 서더레, 남더레, 북더레, 중앙더레 벌은 가지, 동은 못엿⁴⁵⁾ 꽃은 피난 종지만씩, 사발만씩, 낭푼만씩⁴⁶⁾ 철년(千年)을 살 듯, 말년(萬年)을 살 듯, 동청목(東靑木), 서백금(西白金), 남적화(南赤花), 북하수(北黑水) 동더레 벌은 가지, 스만오천육백(四萬五千六百) 가지, 번성꽃(繁盛花), 생불꽃(生佛花), 환생꽃(還生花), 가지꽃이 뒹엇구나.

동해용궁떡님아기 은수반에 꽃씨 심으난, 불리도 웨 불리, 송이도 웨 송이, 가지도 웨 가지, 동은 못엿 꽃은 피난 검뉴울꽃이⁴⁷⁾ 뒹엇구나.

옥항상저님이 꽃빈장⁴⁸⁾ 헤엇구나. 멩진국떡님아기랑 인간 생불 할망으로 들어사고, 동해용궁떡님아기랑 저싱할망으로 들어사렌 허난, 놀려 들언 상가지 꽃을 오독톡허게 꺼졌구나.⁴⁹⁾ 멩진국떡님아기 곤는⁵⁰⁾ 말이,

“동해용궁떡님아기야, 무사 상가지 꽃을 오독톡허게 꺼끔시니?”

“나도 저싱 가민 얻어먹어사 뉘 거난, 배(腹) 안네 생불 주영 놔두민 석 들 백일 안네 피로 싯쳐, 물로 싯쳐 네리게 허고, 데으섯 들 넘어가민 어멍 배 안네서 숨도 끊어지게 헤여불고, 어멍 배 배끗데 네우민, 초사흘, 초일레 넘어가민 낮역시⁵¹⁾ 꺾치,⁵²⁾ 밤역시 꺾치 우는 정끼(驚氣), 자는 정끼, 경짚(驚症), 경썰(驚勢) 불러주영 얻어먹고, 아기가 웃으민 웃은 깎,⁵³⁾ 도리도 리허민 도리도리헌 깎, 손뺍 치영 짝짜꿍, 줌메줌메허민⁵⁴⁾ 그 깎을 얻어먹고 앓이민⁵⁵⁾ 앓인 깎, 기어뎅기민 기어뎅긴 깎, 사민⁵⁶⁾ 산 깎, 걸으민 걸음 걸은 깎 얻어먹켄.”

허난,

“걱정허지 말라. 동해용궁떡님아기야, 아기 어멍 뚫든⁵⁷⁾ 치메 저고리도 네어주마. 아기 어

39) 오라: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흔히 서두에 쓰는 표현.

40) 곱앗구나: 말했구나.

41) 꺾따지고: 같아지고.

42) 못헤키여 : 못하겠다.

43) 불리: 뿌리.

44) 송에: 송이.

45) 동은 못엿: 열매가 맺혀.

46) 낭푼만씩: 나무푼주만큼. ‘푼주’는 아가리는 넓고 밑은 좁은 너부죽한 그릇.

47) 검뉴울꽃이: 시들어 가는 꽃이.

48) 꽃빈장: 꽃구경.

49) 꺼졌구나: 꺾였구나.

50) 곤는: 말하는.

51) 낮역시: 아기가 낮에 울며 보채는 행동.

52) 꺾치: 같이.

53) 깎: 값.

54) 줌메줌메허민: 잼잼하면.

55) 앓이민: 앓으면.

56) 사민: 서면.

57) 뚫든: 땀에 젖은.

멍 애기 업영 덩기렌 걸레도 네어주마. 샷지생기도⁵⁸⁾ 네어주마. 오라. 우리 니영나영 화훼(和解)허게.”

멍진국떡님아기 받던 잔은 동해용궁떡님아기 받고, 동해용궁떡님아기 받던 잔은 멩진국떡님아기 잔을 받았. 일부 훈 잔 화훼헤엿습네다.

동해용궁떡님아기 난산국을⁵⁹⁾ 풀엿습네다. 하다 이 악심(惡心) 들게 허지 맙서. 아기덜 낮역시, 밤역시 우는 정끼, 자는 정끼, 경징, 경썰 허게 허지 맙서. 누웁 자당 일어낭 올게 허지 맙서. 애기덜 숨 넘영 가게 허지 맙서. 피로 싯쳐, 물로 싯쳐 네리게 허지 맙센, 영 헤영,

구할망본풀이>비년

난산국을 풀엿습네다. 동해용궁떡님아기 오늘 상 받아근 청쫓독에 청스룩도⁶⁰⁾ 걷고, 소쫓독에 백스룩도 걷고, 탁쫓독에 흑스룩도 걷고, 남우광데 질테 스룩을 다 걷어근 물똥⁶¹⁾ 좋고, 쉼똥⁶²⁾ 좋고, 유기전답(鎡器田畝) 좋은 딜로 테역⁶³⁾ 단풍(丹楓) 좋은 딜로 전송허정 허옵네다.

훈 설 적에 간 아기, 두 설 적에 간 아기, 세 설 적에 간 아기, 네 설 적에 간 아기, 다섯 설에 간 아기, ㄹ섯 설에 간 아기, 일곱 설에 간 아기, ㄹ덱 설에 간 아기덜, 아홉 설에 간 아기덜, 열 설에 간 아기, 열흔 설, 열두 설, 열세 설, 열네 설, 열다섯 설에 간 아기덜 덩기다근,⁶⁴⁾ 풀잎에 세잎에 체영⁶⁵⁾ 간 아기덜, 병원에 갓당 간 아기 네창에서 물에 빠정 거리에서 사고 만남 간 아기덜, 오늘 잘 악심 들게 허지 말앙, 인정(人情)⁶⁶⁾ 잘 받았, 요 멧질(魅-)로⁶⁷⁾ 풀어네자. 천왕(天皇) 가민 열두 멧질, 지왕(地皇) 가민 열흔 멧질, 인왕(人皇) 가민 아홉 멧질, 동이 가민 청메(靑魅), 서이 가민 백메(白魅), 남이 가민 적메(赤魅), 북에 가민 흑메(黑魅), 중앙 황심메, 정월이라 상상 멧질, 이월이라 영등 멧질, 삼월이라 삼진 멧질, 스월이라 초파일 멧질, 오월이라 단오 멧질, 유월이라 유두 멧질, 칠월이라 칠석 멧질, 팔월이라 추석 멧질, 구월이라 봉운 멧질,⁶⁸⁾ 시월은 단풍 멧질, 동짓들은 자리 알에 깔린 멧질, 육설들은 자리 우이 깔린 멧질, 방안방안, 구역구역⁶⁹⁾ 묻어진 멧질랑 물똥, 쉼똥, 유기전답 좋은 딜로 잘 전송헉네다에. <다 풀엿습니다>

58) 샷지생기도: 기저귀도.

59) 난산국을: 태어난 곳. 혹은 그 내력 본풀이를.

60) 청스룩도: 일이 안 되게 하는 사기(邪氣)도.

61) 물똥: 말똥.

62) 쉼똥: 소똥.

63) 테역: 잔디.

64) 덩기다근: 다니다가.

65) 체영: 치어서.

66) 인정(人情): 굿을 할 때 신에게 바치는 돈, 옷, 지전(紙錢) 등.

67) 멧질(魅-):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도둑질, 싸움, 살인 등을 일으키게 하여 손해를 주는 사기(邪氣).

68) 봉운 멧질: ‘멩두 멧질’이라고 함. 멩두는 심방이 조상으로 모시는 무구로 신칼, 산판, 요령을 말함.

69) 구역구역: 구석구석.